

# 2006 ECOSOC 실질회의(9) - 인도지원분야

## 1. 핵심 요지

가. 7.18(화) 표제회의 속개되어 위기상황에서의 유엔의 인도적 조정기능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별첨 결의 (E/2006/L.13)를 컨센서스로 채택하고 인도지원분야 논의를 종결하였음.

- 동 결의는 인도적 지원회의 개막에 앞서 일본과 자메이카의 조정하에 문안협상을 완료하였으며 실질회의에서는 별도의 토의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됨.

나. 상기 결의 채택에 앞서 '만성적 자원부족에 처한 인도적 위기상황' (Chronically Under-funded Emergencies)이라는 주제로 제2차 공식 패널토의가 개최되었음.

- 동 패널에 참가한 UN 기구 및 각국 대표는 자연재해를 비롯한 각종 긴급상황에서의 인도적 지원 관련 UN 및 UN 기구들의 만성적

재정부족 상황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만성화된 긴급사태에 대한 공여국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함.

## 2. 관찰 및 평가

가. 금번 회의에서는 아프리카 등지의 내전과 기근 및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사태를 점검하고 UN 및 UN 기구들의 만성적 자원부족의 문제점을 집중 논의함.

- 이에 따라 인도적 위기사태시 OCHA 합동 어필에 대한 적시대응 등의 방법을 통해 우리정부 지원의 국제적 visibility를 확보하고 UN 차원의 지원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나. 아울러 금번 인도적 지원분야 회의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인도적 위기사태에 대한 긴급지원과 장기적인 개발문제간의 연계 및 조화문제등이 향후 UN 등 여타 인도지원분야 포럼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감안, 관련 회의준비 및 참석에 있어 관련국(局)간 업무협조가 더욱 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봄.

### 3. 제2차 공식패널토의 세부 내용

가. A. Cavaco EC 인도지원국장은 EC는 2005년 인도지원 분야에 총 22억유로를 기여하는 등 동 분야에서 가장 큰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체첸·네팔·미얀마 등 인도적 위기가 장기화된 ‘잊혀진 재난’(forgotten crises)에 대한 여타 공여국들의 기여를 촉구함.

나. A. Raghe 아프리카구호위원회 의장은 15년 이상의 내전과 폭력사태 및 기근으로 인한 소말리아의 절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은 만성적인 부족상황임을 설명함.

■ 특히 동 의장은 현재 소말리아에 대한 UN 합동어필의 평균 50% 미만만이 재원조달에 성공하고 있으며 사실상 소말리아의 가장 큰 resource는 국제사회의 원조가 아닌 해외 거주 소말리아인의 본국 송금액이라는 점을 상기함.

다. D. McNamara 긴급구호조정관 특별고문은 콩고(DRC)·수단·우간다 등지에서 발생중인

내전과 기근으로 인한 지속적인 국경내 인구이동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평화구축과 개발이라는 장기적인 과제를 위해 공여국들이 이 문제에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함.

■ 동 고문은 일례로 2004년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ODA가 10억불에 달했으나 2005년은 2억불로 감소하였고 이중 절반인 1억불은 외채상환에 사용되었음을 상기하며 만성적인 위기를 겪는 국가에 대한 대외원조의 감소에 우려를 표명함.

라. EU 대표는 위기상황에서의 인도적 지원은 중립적이며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EU는 긴급상황에서의 인도적 지원시 earmark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함.

■ 아울러 CERF는 인도적 위기시의 만성적 재원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기존의 재원조달 메커니즘을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함.

마. 아울러 인도적 위기상황을 포함한 만성적인 대개도국 지원부족 문제는 (선진공여국의) 정치적 의지뿐 아니라 도덕의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기니비사우 대표의 지적에 대해 미국대표는 많은 아프리카 국가의 치안문제가 지원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함.

[자료: 주제네바대표부]